

운젠 온천 역사 탐방 코스 : 다이코쿠텐 마에불

오시도리노이케 연못(벳쇼 댐) 둘레를 따라 난 길을 걷다 보면 삼나무 숲으로 이어지는 돌 도리이 앞에 이릅니다. 이곳에는 부와 행운의 신인 다이코쿠텐이 미소 짓고 있는 얼굴이 거대한 바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다이코쿠텐은 원래 인도의 신이었습니다. 9세기 일본 승려들이 중국으로 건너가 새로운 종교학을 가지고 와서 다이코쿠텐 신앙을 일본에 전파했습니다. 1420년대에는 칠복신 중 한 신으로 추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천년 전에 천 명이 넘는 승려들이 운젠에 살았고, 오시도리노이케는 많은 절이 있는 분지였습니다. 승려들은 다이코쿠텐을 모시거나 전통적인 신앙활동을 했습니다. 다이코쿠텐은 점차 복의 신, 사업의 신으로 추앙받게 되었는데, 오늘날에도 운젠에서는 개인과 가족, 기업이 이 다이코쿠텐에게 공물을 올리고 참배를 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습니다.